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례와 국회 심의 결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이규민 분석관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에 따른 추경 필요성 제기

■ 2025년 우리경제의 하방위험 확대

-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하방위험 증가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주요 전망기관 역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
- 2025년 1월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이 1.6~1.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

[표 1] 주요 전망기관의 2025년 경제성장률 조정 현황

구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망시점)	조정
정부	2.2%(‘24.7.) → 1.8%(‘25.1.)	△0.4%p
한국은행	2.1%(‘24.8.) → 1.9%(‘24.11.) → 1.6~1.7%(‘25.1.)	△0.4~0.5%p
OECD	2.2%(‘24.9.) → 2.1%(‘24.12.)	△0.1%p
IMF	2.2%(‘24.10.) → 2.0%(‘25.1.)	△0.2%p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경기 대응의 필요성 제기

-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내수 약화 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추경 편성 사례와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
- 한국은행은 2025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0.2%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15~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당초 정부는 상반기 재정의 신속집행(중앙 67%, 지방 60.5%) 등을 통해 대응하되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는 관련 사항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표 2]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추경 편성 요건

구분	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2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역대 추경 편성사례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은 총 16회 편성

-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추경이 편성¹⁾되었으며 특히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추경을 8회 편성

• 추경은 메르스 및 가뭄·장마 대응(2015년), 백신·방역 보강(2020~2022년) 등을 위해 편성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민생안정, 일자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

※ 2015년 및 2020~2022년 편성된 추경 역시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표 3]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 편성 현황(총 16회)

(단위: 조원)

구분	제출일 의결일	정부안 편성규모		국회 세출증감	주요내용
		세입결손보전	세출증액		
2008년	6.20. 9.18.	-	5.2	△0.3	①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2.4조원) ②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0.4조원) ③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1.4조원)
2009년	3.30. 4.29.	11.2	17.7	△0.5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4.2조원)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③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5조원)
2013년	4.18. 5.7.	12.0	7.0	△0.01	①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1.3조원) ② 중소·수출기업 지원(1.0조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3.0조원)
2015년	7.6. 7.24.	5.6	9.3	△0.06	①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5조원) ② 가뭄 및 장마 대책(0.8조원) ③ 서민생활 안정(1.2조원) ④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2016년	7.26. 9.2.	-	8.9	△0.1	① 구조조정 지원(1.9조원)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9조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2.3조원)
2017년	6.7. 7.22.	-	10.6	△1.0	①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5.4조원) ②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2.3조원) ③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3.5조원)
2018년	4.6. 5.21.	-	3.9	△0.02	① 청년 일자리 대책(2.9조원) ②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1.0조원)
2019년	4.25. 8.2.	-	6.7	△0.9	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2.2조원) ②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4.5조원)
2020년	제1회 3.5. 3.17.	3.2	8.5	2.4	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2.3조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4조원) ③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원)
	제2회 4.16. 4.30.	-	4.0	4.0	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7.6조원)
	제3회 6.4. 7.3.	11.4	16.0	△0.2	① 금융지원 패키지(5.0조원) ②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대책(18.9조원)
	제4회 9.11. 9.22.	-	7.8	△0.03	①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3.8조원) ②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1.4조원) 및 긴급돌봄 지원 등(2.2조원)
2021년	제1회 3.4. 3.25.	-	15.0	△0.1	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6.9조원) ② 긴급 고용대책(2.8조원) 및 방역대책(4.1조원)
	제2회 7.2. 7.24.	-	31.8	0.2	① 코로나19 피해지원(15.7조원) 및 백신·방역 보강(4.4조원) ②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6조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12.6조원)
2022년	제1회 1.24. 2.21.	-	14.0	2.6	① 소상공인 지원(11.5조원) ② 백신·방역 보강(1.5조원) 및 예비비 보강(1.0조원)
	제2회 5.13. 5.29.	-	52.4	2.8	① 소상공인 지원(26.3조원) 및 민생·물가안정(3.1조원) ② 방역 보강(6.1조원) 및 예비비 보강(1.0조원) ③ 법정 지방이전지출(23.0조원)

주 1. 정부안의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규모를, 국회 세출증감은 추경 심의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 변동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2. 2020년 제2회 추경과 같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세출증액분보다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가 클 수 있음
3. 추경 주요내용은 정부안 기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열린재정,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의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편성된 추경은 제외하고 집계

▪ 총 16회에 걸친 추경 중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9회

-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자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원 중 상당부분은 국채·당해연도 초과세수 등에 의존
- 특히 정부는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발행없이 추경을 편성(2016·2017·2021 제2회·2022 제2회)

[표 4] 추경 재원 조달방식

구분	국채 추가발행	기금 여유자원	지출 구조조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당해연도 초과세수
2008년	×	○	×	○	×
2009년	○	○	×	○	×
2013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2020년	제1회	○	○	×	×
	제2회	×	○	×	×
	제3회	○	○	×	×
	제4회	○	×	○	×
2021년	제1회	○	×	○	×
	제2회	×	×	○	○
2022년	제1회	○	×	×	×
	제2회	×	○	○	○

주: 정부안 기준이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포함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 정부는 총 16회 추경 중 12회를 상반기 중 편성·제출

- 정부의 추경 국회 제출 시점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4회, 2분기 8회, 3분기 4회로, 정부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 가장 신속하게 편성·제출된 추경은 2022년 제1회 추경(국회 제출 1.24.)
- 가장 늦게 편성·제출된 추경은 2020년 제4회 추경(국회 제출 9.11.)

[표 5] 정부의 추경 국회 제출 시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 제출	4회 (2009·2020 제1회· 2021 제1회·2022 제1회)	8회 (2008·2013·2017· 2018·2019·2020 제2회· 2020 제3회·2022 제2회)	4회 (2015·2016· 2020 제4회·2021 제2회)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국회는 총 16회 추경 중 14회를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 정부의 추경 제출 이후 국회의 심의·의결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2주 이내 3회, 1개월 이내 8회, 2개월 이내 3회, 2개월 초과 2회로, 국회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추경을 심의·확정

- 가장 신속하게 심의·의결된 추경은 2020년 제4회 추경(9.11. 제출, 9.22. 의결, 11일 소요)
- 가장 오랫동안 심의·의결된 추경은 2019년 추경(4.25. 제출, 8.2. 의결, 99일 소요)

[표 6]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소요기간

구분	2주 이내	2주 초과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국회 심의 의결	3회 (2020 제1회·2020 제2회· 2020 제4회)	8회 (2009·2013·2015· 2020 제3회·2021 제1회· 2021 제2회·2022 제1회· 2022 제2회)	3회 (2016·2017·2018)	2회 (2008·2019)

주: 소요기간은 국회 제출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국회는 총 16회 추경 중 11회에서 세출을 감액

- 국회의 추경 심의결과를 세출 총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16회 중 11회는 정부안 대비 감액하고 5회는 증액

[표 7] 국회의 추경 심의결과(증·감액 기준)

구분	감액	증액
국회 심의 증감	11회 (2008·2009·2013·2015·2016·2017·2018· 2019·2020 제3회·2020 제4회·2021 제1회)	5회 (2020 제1회·2020 제2회·2021 제2회· 2022 제1회·2022 제2회)

주: 세출 총량의 증감여부는 총지출 순증·순감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의 경제적 효과

■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사업 특성, 자원 조달방식, 집행 시점 등에 따라 상이

- 추경은 사업의 특성(자본지출, 용자지출, 재화 및 용역, 경상이전 등), 자원 조달방식(국채 발행,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
- 추경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과거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저 0.1%p, 최대 0.8%p 수준(당시 추경의 규모는 GDP 대비 0.3%~2.3%²⁾)
 - ※ 정부는 일반적으로 추경 편성 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공개하였으나 2020년 추경부터는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 8] 추경의 경제적 효과

(단위: 조원)

구분	편성규모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세출증액	세입경정	GDP 대비	
2009년 추경	17.7	11.2	2.3%	0.8%p
2013년 추경	7.0	12.0	1.2%	0.3%p
2015년 추경	9.3	5.6	0.9%	0.3%p
2016년 추경	8.9	-	0.5%	0.1~0.2%p
2019년 추경	6.7	-	0.3%	0.1%p

주 1. 추경의 GDP(명목) 대비 규모는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계산

2.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추경이 편성된 당해연도 기준

3.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참고로 추경의 GDP 대비 비율은 추경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추경의 총량과 세부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GDP는 사후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